

#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척도 개발과 대처행동 조사

## Development of a Korean Coping Strategy Scale and Examination of Urban Low Income Housewives' Coping Strategy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정문자  
강사 이미리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essor : Chung, Moon Ja

Lecturer : Lee, Meery

###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결 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와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Coping Strategy Scale and to examine cop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housewives from urban low-income families using this Scale.

Two hundred and forty mothers were either interviewed or filled out this Coping Strategy Scale and Demographic Information Questionnaire. The Coping Strategy Scale consisted of 14 items under 4 dimensions of problem-solving, support-seeking, emotion-regulation/explosion, and abandonment. Item analysis and construct validation were found acceptable. The alpha coefficient of the Scale was .73.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thers used problem-solving most as a coping strategy, followed by support-seeking and emotion-regulation/explosion. Abandonment coping strategy was used least frequently.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mothers' and their husbands' age, duration of marriage, income and expenditure per month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others' coping strategies.

### I. 문제 제기

도시 저소득층 가족은 중류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취약

한 자원으로 인해 생활의 여러 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남희용, 1990; 한국가족학 연구회, 1992). 특히, 도시 저소득층 주부는 빈곤이라는 계층적 특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특성으로 인한 이

중적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볼 수 있는데(김인숙, 1992; Thoits, 1987), 가구주의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워므로 주부의 소득 참여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녀가 어린 경우에 저소득층의 주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는다(변화순, 1989;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 1998a; 정현희, 최경순, 1996; 조희금, 1993; 허정무, 1993). 그 뿐 아니라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김태홍, 1993; 정문자 외, 1998b; 통계청, 1997). 저소득층 주부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자원인 사회적 관계망, 예를 들면 친척들과의 접촉에는 한계가 있어(김영익, 1995; 김주희, 1992; 조은, 조옥라, 1991)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친척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 이들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부 자신의 대처전략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주부들의 대처전략 행동 특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정보나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면접이나 참여 관찰을 통해 저소득층 가족들의 생활을 살펴본 일부 연구들은 저소득층 주부들이 어려움이 닦혔을 때 주로 소극적이고 자포자기적인 대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인숙, 1992; 조은, 조옥라, 1991).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주부들의 대처 행동은 일반적으로 중류층 주부들이 보이는 적극적 대처 행동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중류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대처전략 척도는 저소득층 주부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 행동들을 민감하게 측정해내지 못할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저소득층 주부의 대처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은 특정 소수에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로 외현적 행동에 대한 관찰의 결과이므로 적절한 표본을 선정하여 내적인 심리상태도 함께 측정하여 경험적 검증을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주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과 이 척도를 사용하여 주부들의 대처전략 행동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대처(coping)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며(Lazarus & Folkman, 1984), 대처전략(coping strategy)은 특정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특정 대처 행동 반응이라고 정의된다(Compas, 1987).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대처전략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김경신, 김오남, 1997; 김애순, 윤진, 1987; 이미리, 1995; Billings & Moos, 1984; Compas, Orosan, & Grant, 1993; Ebata & Moos, 1991), 하나는 문제중심 대처전략(problem-focused coping strategy)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중심 대처전략(emotion-focused coping strategy)이다.

문제중심 대처전략이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형태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반응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중심 대처전략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둔 대처 반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제중심 대처전략은 접근 대처전략(approach coping strategy) 혹은 능동적 대처전략이라고도 하며, 정서중심 대처전략은 회피 대처전략(avoidance coping strategy) 혹은 수동적 대처전략이라고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대처전략측정 도구들은 문제중심과 정서중심의 대처전략의 두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보이나 대처전략 척도의 구성 요인과 각 구성 요인의 하위 범주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서된, 장윤옥(1996)은 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정 자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과 가정 자원 지각 정도에 따라 가정 자원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본 연구에서 대처 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는데, 척도의 내용은 정서 지향적 대처, 문제 지향적 대처, 그리고 방임적 대처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정서 지향적 대처와 문제 지향적 대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처전략

반응과 일치하나 방입적 요인이 첨가된 점이 다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결과 분석에서 도시 주부들의 대처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결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김경신과 김오남(1997)은 편모 가족 주부의 대처 전략 측정을 위해서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1986)과 Billings & Moos(1984)의 척도를 기초로 문항을 작성하였는데 문제해결적 대처(문제중심 대처전략에 해당)는 이성적 행동, 대안적 선회, 도움 요청, 인내, 긍정적 사고, 단계적 해결, 대체, 유연성, 재충전, 자아적응, 적극적 소거를 포함하였다. 반면 정서적 대처(정서중심 대처전략에 해당)는 투사, 운명주의, 정서표출, 환상적 회피, 자기책망, 사회적 비교, 진정요법, 위축, 기원, 회귀화, 우유 부단, 지연, 방어, 신앙을 포함하였다. 결과 보고에서 편모 가족 주부들은 정서적 대처보다 문제해결적 대처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는데 이 두 가지 대처전략의 하위 대처전략 행동에 대해서는 기술되지 않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처전략 행동을 측정할 척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의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리(1996)는 Billings와 Moos(1984)의 척도를 변안한 후 청소년의 대처전략 반응을 측정하였다. 문제중심 대처전략의 하위 요인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 혹은 감소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문제해결 대처전략(예: 행동계획 세우기, 한번에 문제 한가지씩 해결하기)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정보모색 대처전략(예: 선생님과 의논하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기)으로 분류되었다. 정서중심 대처전략은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고 긍정적인 사고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정서조절 대처전략(예: 운동하기, 집안 일에 몰두하기)과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정서폭발 대처전략(예: 술마시기, 다른 사람에게 소리지르기)으로 하위 분류되었다.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정서조절 대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다음으로는 문제해결 대처 전략과 정보모색 대처전략이었으며 정서폭발 대처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자와 정현숙(1994)은 청소년의 대처전략 연구에서 McCubbin, Olson, 그리고 Larson(1982)의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는데 대처전략 행동을 친척/이웃의 도움, 가족의 도움, 스스로 해결, 친구의 도움, 종교적 도움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대처전략 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전략은 스스로 해결이었고 그 다음순으로 친척 및 이웃의 도움, 가족의 도움, 친구의 도움, 그리고 종교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대처전략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의 구성 요인으로 문제중심 대처전략과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거나 척도의 구성요인 또는 구성요인의 하위 범주의 내용은 연구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사용된 도구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대처행동 특성이 달라질 뿐 아니라 구성요인이 되는 문항 내용에만 응답이 국한되어서 대처행동 특성이 기술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외국의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주부들의 특징적인 대처전략 행동 특성이 척도의 문항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처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특성, 예를 들어 문화(Lee, 1991; Seiffge-Krenke & Shulman, 1990), 사회경제적 배경(김경신, 김오남, 1997; 정서린, 장윤옥, 1996; 조은, 조옥라, 1991), 성(Frydenberg & Lewis, 1991), 자아정체성(Reischl & Hirsch, 1989) 등에 따라 대처전략 행동 특성이 다를 뿐 아니라 대처전략의 효율성도 다름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대처전략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잘 반영한 대처전략 행동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주부의 대처전략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과 이들의 대처전략 행동 특성 조사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본 척도는 적절한가?  
구체적으로 문항양호도, 타당도, 신뢰도는 어떠한가?
- 2)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대처전략 행동은 어떠한가?

수준이다.

## 2. 연구도구

### 1) 사회경제적 변인 측정 질문지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결혼 상태, 자신과 남편의 연령, 결혼 기간, 교육수준, 직업유무, 직업의 종류, 월소득, 그리고 가구 월소득과 월지출, 식구수 등 인구론적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한 질문지이다.

### 2) 대처전략척도

예비조사를 거쳐 제작된 총 15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남편/시댁/친정 식구들과의 갈등,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어려움, 직장 생활이나 부업일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래 문항을 읽으시고 각 문항마다 어머니의 사정에 맞는 칸에 V표 하십시오." 응답 방식은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로서 1: 전혀 아니다, 2: 별로 아니다, 3: 약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되어있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저소득층 주부의 대처전략 측정을 위한 척도 구성을 위해 서울시내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12개소<sup>2)</sup>에서 어머니 296명을 편의표집하여 1997년 3월에서 5월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처전략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만들기 위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 공장지역, 그리고 산동네에 위치한 어린이집<sup>1)</sup>에 다니는 유아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육료 감면대상자의 어머니 247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인구론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연구대상 주부의 평균 연령은 34세 (범위: 23~51세), 남편의 평균 연령은 37세 (범위: 24세~52세)이며 가장 당 한 자녀 또는 그 이상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평균 가족수는 4.1명이며 평균 자녀수는 1.9명이었다. 대부분의(84%) 주부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나머지 16%는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혼자 살고 있다.

교육 수준은 전체 주부의 55%가 고졸이었고, 중졸이하가 30%이었으며 전문대나 대졸자는 15%를 차지하였다. 남편의 경우는 고졸 24%, 중졸이하 40%, 전문대나 대졸이 36%이었다. 반 이상의 주부들이(68%)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 주부의 32%가 판매/서비스직/자영업, 29%가 단순근로직, 23%가 기능직, 16%가 사무직에 종사하였다. 남편의 경우 41%가 기능직, 20%가 단순근로직, 19%가 판매/서비스직/자영업, 12%가 사무직에 종사하였고 8%가 무직이었다.

가구의 월소득은 전체의 53%가 100만원 이하, 34%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그리고 무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13%가 150만원 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소득 상황은 1996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215만원(통계청, 1997)에 훨씬 못미치는

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동작구 사당동, 상도동, 성동구 하왕십리, 관악구 봉천동, 구로구 구로동, 송파구 마천동, 강북구 미아동, 영등포구 신길동,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 마포구 상암동, 서대문구 총정로, 성남시 수성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20개소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전체사례수=247)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배우자 유무 <sup>1)</sup>	유	205(84.0%)	
	무	39(16.0%)	
연령	주부	247	33.8(4.5)
	남편	247	36.7(4.5)
결혼기간		247	8.8(3.4)
교육수준	주부	국졸이하	25(10.1%)
		중졸	51(20.6%)
		고졸	136(55.1%)
		전문대졸 대졸이상	22( 8.9%) 13( 5.3%)
	남편	국졸이하	19(14.7%)
		중졸	33(25.6%)
		고졸	31(24.0%)
		전문대 대졸이상	20(15.5%) 26(20.2%)
주부의 직업유무	유	168(68.0%)	
	무	79(32.0%)	
직업종류	주부 <sup>2)</sup>	단순근로직	44(28.9%)
		기능직	35(23.0%)
		판매, 서비스, 자영업	48(31.6%)
		사무직	25(16.5%)
	남편	무직	16( 7.7%)
		단순근로직	42(20.1%)
		기능직	86(41.1%)
		2판매, 서비스, 자영업 사무직	40(19.1%) 25(12.0%)
월소득	주부	50만원 이하	74(46.0%)
		51-70만원	56(34.8%)
		71-90만원	23(14.2%)
		91만원 이상	8( 5.0%)
	남편	50만원 이하	34(16.2%)
		51-70만원	25(12.0%)
		71-90만원	52(24.9%)
		91만원 이상	98(46.9%)
가구월소득	100만원 이하	118(52.7%)	
	100만원-150만원	77(34.4%)	
	150만원 이상	29(12.9%)	
가구월지출	100만원 이하	188(79.0%)	
	100만원-150만원	37(15.5%)	
	150만원 이상	13( 5.5%)	
식구수			4.1(1.0)

1) 무응답이 있는 관계로 변인마다 사례수가 일정치 않음

2) 연구대상자 247명 중 168명이 취업주부이었으므로 직업종류와 월소득의 경우 주부의 총 사례수는 168명임

〈표 2〉 15개 유목별 반응의 예

유목	반응의 예
1. 혼자서 직접 해결	밤 늦게까지라도 남편 도움 없이 일을 마친다.
2. 해결책을 생각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습지를 시킬 생각이다.
3. 목표를 정하고 노력	후의 나은 삶을 위해 참고 노력한다.
4. 잘 해결되리라 희망을 가짐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5. 무조건 참음	침묵한다.
6. 스스로를 위로	내가 선택한 길이므로 잘 될 거라고 자기 체면을 건다.
7. 취미 활동을 함	영화관을 가거나 쇼핑을 한다.
8. 집안 일을 함	밀린 집안 일을 더 많이 한다.
9. 반성을 함	내가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10. 기도를 함	주(부처)님께 기도 드린다.
11. 타인에게 신경질이나 짜증을 냄	남편에게 짜증내고 화풀이를 한다.
12. 술, 담배를 함	술 마신다
13. 가족·이웃의 도움을 구함	남편과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14.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	선생님과 상담한다.
15. 체념	혼자 고민하다가 포기한다.

해 2개의 개방형 질문을 하였는데 하나는 “어머니께서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모두 열거하시고 가능한 상세히 적어주십시오”, 다른 하나는 “어머니께서는 직장에서 경험하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적어주십시오.”이었다. 질문에 대한 반응들은 본 연구자들과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명에 의해 15개의 유목으로 분류되었다(표 2 참조). 이들 15개 유목의 내용 분류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50 사례에 대해 4명의 분류자들간의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는 .88~.90이었다. 분류 유목에 기초하여 대처전략 척도의 15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 2) 본조사

본조사의 자료는 연구대상에서 소개된 20개소 어린이집을 통해 1997년 7~9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질문지를 어린이집으로 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였으며 어머니들에 의해 작성된 질문지를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309부를 배부하여 255부를 회수하였으며(82.5%의

회수율) 부실 응답한 질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247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 4. 자료분석

대처전략 행동 측정 질문지는 정답이 없는 척도이므로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항곤란도 분석은 하지 않고 문항변별도 분석만을 하였다. 변별도 분석을 위해서는 총점을 기초로 상위 1/3 집단과 하위 1/3 집단을 분류하여 각 문항에 대한 두 집단의 반응이 총점과 같은 방향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X^2$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총점(상, 하 집단으로 분류된 명목변인)과 각 문항점수와의 상관은 Cramer의 V계수로 제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살펴보았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분석과정을 거쳐 개발된 대처전략 척도를

2) 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동작구 사당동과 상도동, 성동구 하왕십리,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12개소임.

사용하여 도시저소득층 주부의 대처전략 행동을 측정된 결과는 네 가지 스트레스 상황별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처전략 행동은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으므로(김경신, 김오남, 1997; 김애순, 윤진, 1987; 이미리, 1995; 정문자, 정현숙, 1994; Aldwin & Revenson, 1987; Billings & Moos, 1981) 본 연구 대상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네 가지 유형의 일상적 스트레스(정문자, 이미리, 어주경, 1998b) 상황별로 대처전략 척도에 반응하게 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 갈등,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 그리고 일(직장, 부업)과 관련된 어려움을 포함하였다. 각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된 대처전략 수준들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지 평가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유형별로 측정된 대처전략 행동 특성이 주부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회경제적 배경변인을 독립변인, 대처전략 점수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이 연속변인일 경우에는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 명목변인일 경우에는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와 해석

##### 1. 문항변별도

대처전략 척도의 문항변별도 분석을 위해서 산출한 X<sup>2</sup>값과 Cramer's V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총 15개 문항 중에서 12번 문항(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X<sup>2</sup>값과 Cramer's V값은 p<.05와 p<.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고 Cramer's V값은 .26-.70의 범위를 보여 문항의 변별도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12번 문항은 X<sup>2</sup>값과 Cramer's V값이 유의하지 않아 총점을 기준으로 분류된 상하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본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 대처전략 척도의 문항 변별도 분석

문항	X <sup>2</sup>	Cramer's V
1	15.31**	.35**
2	34.03***	.53**
3	30.57***	.50***
4	27.74***	.48***
5	8.49*	.27*
6	27.81***	.49***
7	17.63***	.40***
8	58.43***	.70***
9	16.96***	.37***
10	45.44***	.63***
11	18.78***	.39***
12	2.24	.15
13	8.26*	.26*
14	16.02**	.37**
15	13.71**	.34**

\* P<.05 \*\* P<.01 \*\*\*P<.001

##### 2. 타당도

문항변별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14개 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Model)을 적용하였으며 요인들간의 상관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각회전(Obimin Rotation)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Eigen값과 Scree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Scree검사 결과와 Eigen값을 고려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4개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57%를 설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요인 I은 '문제해결' 요인으로 혼자함으로써, 또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행동을 기술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변량의 24%를 설명한다. 요인 II는 '지원모색' 요인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대처행동을 기술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변량의 14%를 설명한다. 요인 III은 '정서조절 및 표출' 요인으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상태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을 기술한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변량의 10%를 설명한다. 끝으로 요인IV는 '체념' 요인으로 문제를 무시하거나 무조건 참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기술한 2개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9%를 설명한다. 요인간 상관계수는 .01-.19로 낮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공통분(Communality)은 .44-.69로 각 문항의 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14문항 모두 저소득층 주부의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바람직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 3. 신뢰도

대처전략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 지수로 산출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3$ 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문제해결 요인을 제외하고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문제해결

요인은 .73, 지원모색 요인은 .54, 정서조절 및 표출 요인은 .57, 그리고 체념 요인은 .58로 산출되었다.

### 4. 인구론적 특성으로 본 저소득층 주부의 대처 전략 행동 특성

저소득층 주부들의 인구론적 특성에 따른 대처전략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대처전략 행동 특성을 기술하였다.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대로 연구 대상자의 대처전략 행동을 네 가지 스트레스 상황별로 측정하였다. 즉,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갈등,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 그리고 일(직장, 부업)과 관련된 어려움의 네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소득층 주부들이 어떠한 대처전략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전략 하위요인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하위요인 점수들간의

<표 4> 요인별 문항과 요인간 상관관계

요인	문항내용	I	II	III	IV	h <sup>2</sup>
I 문제 해결	3.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함	.84	-.05	.01	.08	.69
	4.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며, 희망을 가짐	.72	.23	-.02	-.08	.62
	2.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해결책 모색, 생각을 많이 함	.69	.09	-.01	.01	.49
	1. 혼자서 직접 해결을 시도함	.58	-.44	.07	.04	.48
	9.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함	.53	.33	-.09	-.10	.44
	6. 더 나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함	.44	-.27	.29	-.21	.48
II 지원 모색	14. 전문가(원장선생님, 의사 등)에게 조언을 구함	.04	.79	.03	.05	.64
	13. 가족이나 이웃사람들의 도움을 구함	.13	.60	.20	.42	.60
	10.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함	.19	.53	.02	-.42	.53
III 정서조절, 정서 표출	7. 문제를 잊기 위해 취미활동을 함	.01	.04	.83	.25	.68
	8. 문제를 잊기 위해 집안일을 함	.13	-.03	.68	-.21	.61
	11.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이나 짜증을 냄	-.14	.07	.62	-.20	.45
IV 체념	15. 문제를 무시하고 체념함	-.03	.04	.13	-.76	.63
	5. 무조건 참음	.04	-.10	.03	-.73	.58
	Eigen 값	3.32	1.96	1.44	1.19	
	설명변량	23.7	14.0	10.3	8.5	
	요인간 상관					
	요인 I	1.00				
	요인 II	.11	1.00			
	요인 III	.20	.01	1.00		
	요인 IV	-.17	.04	-.19	1.00	



Paired t-test 결과를 요약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수가 다르므로 하위요인간 점수 비교를 위해 문항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표 5>에 의하면 도시 저소득층 주부들의 대처전략 유형은 부분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보였다. 즉,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스트레스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부들은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체념을 통한 대처행동이 가장 적었다. 지원모색 대처전략과 정서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 행동 수준간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주부들의 네 가지 대처전략 행동 수준간에는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지원모색 대처전략, 정서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의 순서였으며, 체념의 대처행동이 가장 적었다. 요약하

면 스트레스에 직면한 주부들은 스스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거나 표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념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각 대처전략 행동이 주부의 인구론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저소득층 주부의 인구론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들은 결혼 상태, 자신과 배우자의 연령과 결혼 기간, 교육 수준, 취업여부, 월소득과 직업의 종류(주부의 경우 취업주부에 게만 적용됨), 가구 월소득, 가구 월지출, 식구수이다. 이들 변인 중에서 명목변인(예: 결혼 상태, 취업여부, 직업의 종류)의 경우에는 이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Oneway ANOVA를 하였고 연속변인의 경우(예: 연령, 교육수준, 결혼 년수, 월소득, 월지출, 식구수)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적용하여 저소득

<표 5> 스트레스 상황별로 사용된 대처전략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Paired t-test 결과

스트레스상황별 대처전략	X	SD	Paired t-test 결과
<b>가정 경제의 어려움 (n=212)</b>			
문제 해결	3.39	.56	지원 모색과 정서 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 수준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모든 가능한 대처전략 점수 쌍들간에는 p<.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임
지원 모색	2.21	.89	
정서 조절 및 표출	2.30	.78	
체념	1.99	.80	
<b>가족 관계 갈등(n=192)</b>			
문제 해결	3.19	.69	지원모색과 정서 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 수준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가능한 대처전략 점수 쌍들간에 p<.01 혹은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임
지원 모색	2.13	.95	
정서 조절 및 표출	2.25	.90	
체념	2.05	.91	
<b>자녀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n=196)</b>			
문제 해결	3.24	.62	모든 가능한 대처전략 점수 쌍들 간에 p<.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임
지원 모색	2.53	.96	
정서 조절 및 표출	2.08	.90	
체념	1.69	.85	
<b>일(직장, 부업)의 어려움(n=153)</b>			
문제 해결	3.21	.74	지원 모색과 정서 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 수준간, 지원 모색과 체념 대처전략 수준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가능한 대처전략 점수 쌍들 간에는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임
지원 모색	2.16	.99	
정서 조절 및 표출	2.12	.97	
체념	1.88	.96	

〈표 6〉 네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가정경제, 가족관계, 자녀양육과 교육, 직장과 부업일)의 대처전략과 인구론적 변인과의 관계  
(전체 사례수=247<sup>1)</sup>)

사회경제적 변인	가정 경제 스트레스				가족 관계 스트레스				자녀양육과 교육스트레스				직장과 부업일 스트레스			
	문제 해결 대처	지원 모색 대처	정서 조절 및 표출	체념 대처	문제 해결 대처	지원 모색 대처	정서 조절 및 표출	체념 대처	문제 해결 대처	지원 모색 대처	정서 조절 및 표출	체념 대처	문제 해결 대처	지원 모색 대처	정서 조절 및 표출	체념 대처
연령																
주부	.11	.26**	-.09	.06	.10	.19**	-.04	.07	.19**	.22**	-.03	.08	.03	.22**	-.04	.02
남편	-.03	.13*	.11	.11	.03	.07	.09	.11	.05	.11*	.07	.06	-.02	.10	.05	.12
결혼기간	.04	.22**	-.02	.03	.01	.18**	-.02	-.00	.18*	.21	.01	.07	.09	.22**	-.01	.02
교육수준																
주부	.09	.02	.01	-.15*	.06	.07	.07	-.01	-.01	.04	.03	-.10	-.13*	-.02	-.02	-.17*
남편	.14*	-.03	-.01	-.19*	.09	.04	.07	-.07	-.04	.04	-.02	-.13*	-.03	.06	.01	-.19**
월소득																
주부	-.01	-.14*	.00	-.10	-.15*	-.12	-.08	-.14*	.05	.03	.07	-.03	.11	-.07	.14	-.11
남편	.11	.05	-.01	-.10	-.00	.02	-.05	-.04	.09	.02	.01	-.12	-.10	-.02	-.10	-.18*
가구월소득	.06	.02	-.01	-.13*	-.03	-.05	.03	-.04	.01	-.02	.02	-.19	-.11	-.01	-.09	-.19**
가구월지출	-.02	.00	-.07	-.20**	-.10	-.03	-.04	-.13*	.02	.00	.01	-.10	-.16*	-.05	-.07	-.20**
총식구수	.01	-.04	-.04	-.10	.02	-.03	-.04	.01	.03	-.02	-.04	-.08	.06	.01	.03	-.01

<sup>1)</sup>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p < .05$ , \*\*  $p < .01$ .

층 주부들의 대처전략 행동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가정경제, 가족관계, 자녀양육과 교육, 직장과 부업일) 상황에서 각 대처 전략 수준과 인구론적 특성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표 6〉에 제시하였다.

### 1) 가정경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표 6〉에 의하면, 저소득층 주부들이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대처행동 즉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는 사회경제적 특성 변인들 중에서 남편의 교육수준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부들은 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지원모색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는 주부 자신과 남편의 연령, 결혼 기간, 주부의 월소득과 의미있

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부와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기간이 길수록 주부들의 지원모색 대처 전략 행동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많아지고 결혼한 지 오래되었을수록 가정에서의 경제적 요구가 커지고 동시에 도움을 받을만한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어 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한편, 주부 자신의 월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모색하는 대처행동을 적게 보였다.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체념하는 대처행동은 자신과 남편의 교육 수준, 가구 월소득과 지출이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자신과 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체념적 대처행동을 적게 보였고, 가구 월소득과 지출이 높은 가족의 주부들이 체념적 대처 행동을 적게 보였다.

또한, 결혼 상태, 취업 여부, 직업의 종류에 따른 대처전략 점수의 일원 변량 분석 결과, 취업 주부의

대처전략은 직업 종류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취업 주부의 경우에 직업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주부들이(자영업과 사무직) 낮은 집단의 주부들에(단순근로직) 비해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체념적 대처행동을 적게 보였다(자영업과 사무직 주부:  $M=3.31$ ,  $SD=1.42$ , 단순근로직 주부:  $M=4.32$ ,  $SD=1.77$ ,  $F=3.28$ ,  $p=.04$ ). 이러한 결과는 자신과 남편의 교육 수준, 월소득과 지출로 대변되는 생활 수준 및 주부 자신의 직업 수준 등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체념하고 포기하는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적어도 줄이는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정서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 사용 수준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경제적 변인들 중 어떠한 변인과의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2) 가족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가족관계 갈등에 대해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수준은 주부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취업한 주부의 경우에 주부 자신의 월소득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주부 자신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이나 시댁 식구등 가족 성원들과의 갈등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행동을 적게 보였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지원모색 대처전략 사용 수준은 주부의 연령과 결혼 기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즉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지원모색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앞에서 보고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모색 대처행동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부가 나이가 들수록, 결혼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증가함을 말해준다.

체념 대처전략 수준은 주부 자신의 월소득과 가구 월지출과 관계가 있었는데 월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 월지출이 많을수록 가족 갈등 문제에 대해 체념적 행동을 적게 보였다. 한편, 정서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 수준은 사회경제적 특성 변인과 의

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자녀 양육과 교육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표 6>에 의하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수준은 주부의 연령 및 결혼 기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즉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 기간이 길수록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지원모색 대처전략 수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주부들은 자신과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과 교육 관련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모색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가 나이가 들수록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상 교육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기보다는 혼자의 힘으로는 남의 도움을 구하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중심 대처전략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체념 대처전략 행동 수준은 남편의 교육 수준과 의미 있는 상관 관계를 보였다. 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주부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련된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체념적인 행동을 적게 하였다. 앞서와 같이 주부들이 사용하는 정서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 수준은 본 연구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 변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 직장과 부업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직장 및 부업일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대처전략 수준과 사회경제적 변인들 간의 관계는 취업 주부만( $N=168$ )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되었다. 문제해결 대처전략은 사회경제적 변인들 중에서 주부의 교육 수준 그리고 가구의 월지출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즉 주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월지출이 많을수록 주부들이 사용하는 문제해결 대처전략 수준이 낮았다.

지원모색 대처전략 수준은 주부의 연령 및 결혼 기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는데,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 기간이 길수록 직장 및 부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모색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정서조절 대처전략 수준은

〈표 6〉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 상태, 취업 여부, 그리고 직업의 종류에 따른 대처전략 점수의 일원 변량 분석 결과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조절 대처전략 점수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가 없는 주부들이 배우자가 있는 주부들에 비해 정서조절 대처전략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 있는 주부:  $M=6.05$ ,  $SD=2.91$ ; 배우자 없는 주부:  $M=7.41$ ,  $SD=2.56$ ;  $F=5.87$ ,  $p<.05$ ).

체념 대처전략 행동 수준은 주부 자신과 남편의 교육 수준, 남편의 월소득, 가구 월소득, 그리고 월지출과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과 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가구 월소득 그리고 월지출이 클수록, 체념 대처전략을 적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된 체념 대처전략과 사회경제적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 V. 논의와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대처전략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대처전략 행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을 하여 저소득층 주부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 행동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처전략 척도는 총 14 문항,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4개의 요인은 문제해결 대처전략, 지원모색 대처전략, 정서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 그리고 체념 대처전략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대처전략의 대표적인 두 유형인 문제중심 대처전략과 정서중심 대처전략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척도들의 내용과 유사하나 정서중심 대처전략의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이 한 개의 요인인 정서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으로 묶였고, 체념적 대처전략이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본 척도는 문항의 변별도 측면에서 양호하며 4개의 대처전략 요인이 전체 변량의 57%를 설명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척도의 Cronbach  $\alpha$ 지수가 .73, 요인별로는 .54에서 .73의 범위로 산출되었다.

본 척도를 사용하여 저소득층 주부들의 대처전략 행동 특성을 4가지 유형의 스트레스 상황별(가정경제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자녀 양육과 교육 스트레스, 직장과 부업일 스트레스) 조사하였으며 각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된 대처전략 수준과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인은 배우자의 유무, 자신과 남편의 연령, 결혼 기간,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직업의 종류, 주부와 남편의 월소득, 가구 월소득과 월지출, 그리고 식구수였다.

저소득층 주부들의 대처전략 행동 특징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 주부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체념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주부들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긍정적인 대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지원모색 대처전략과,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거나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는 정서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은 문제해결 대처전략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였다. 이러한 대처전략 유형은 편모 가족 주부를 대상으로 대처전략을 측정한 김경신과 김오남(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주부들의 대처전략 행동 중 지원모색 대처전략은 주부와 남편의 연령 및 결혼 기간이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이었다. 자신과 남편의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 기간이 길수록 저소득층 주부들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모색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대처하는 스트레스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처행동 양식에 변화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김애

순, 윤진, 1987), 저소득층의 경우 만성적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구하는 대처행동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 증가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특징이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Antonucci, 1993; Feiring & Lewis, 1991)를 참고하면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따라서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처행동이 증가하는 결과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주부의 체념적 대처전략 행동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 인구론적 변인들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였다. 즉, 주부 자신과 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혹은 가구 월소득과 월지출로 대변되는 생활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체념적 대처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한편, 이들 사회경제적 변인은 문제해결 대처전략과는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저소득층 주부들의 교육적 자원이나 경제적 자원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이고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은 못하지만 체념하고 포기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정서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 행동은 본 연구의 인구론적 변인들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환언하면 이 변인들은 저소득층 주부들의 정서적 대처행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기 전에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처전략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수준이 비교적 낮은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문항수가 적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 타당성 있는 문항들을 첨가하여 문항수를 늘인다면 신뢰도 수준을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저소득층 주부를 대상으로 개발된 본 대처전략 척도가 중류층이나 상류층 주부들의 대처전략 측정에도 적합한 지 검토하는 연구들이 수행됨으로

써 각 대처전략 수준에 대한 계층간 비교는 물론 계층에 관계 없는 도구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주부들의 대처전략 행동 특징을 기술하였는데 많이 쓰이는 대처전략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에 기능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추후연구가 실행되었으면 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주부들의 대처전략 행동을 경험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세부 인구론적 특성에 따른 대처전략 특성을 기술한 결과들은 저소득층 주부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행동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주부의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의 내용은 문제해결 대처전략, 지원모색 대처전략, 정서조절 및 표출 대처전략, 체념 대처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문항의 변별도는 양호하였으며 4개의 대처전략은 전체 변량의 57%를 설명하였고 신뢰도 지수인 Cronbach  $\alpha$ 는 .73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소득층 주부들은 스트레스 유형에 관계없이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대처행동인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체념 대처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넷째, 저소득층 주부들과 남편의 연령이 많거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주부들은 지원모색 대처행동을 많이 보였다.

다섯째, 저소득층 주부들은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체념 대처전략을 적게 사용하였다.

여섯째, 이와 같이 인구론적 특성과 대처행동과의 관계는 대처하는 스트레스 유형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 ■ 참고문헌

- 1) 김경신, 김오남(1997).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5(4), 211-228.
- 2) 김애순, 윤진(1987). 성인기의 연령 증가와 상황

- 평가에 따른 대처행동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6(1), 1-9.
- 3) 김영익(1995). 도시 저소득층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연구입대주택 주민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김인숙(1992). 도시 빈곤가족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사회 스트레스 모델의 유용성. *사회복지연구*, 4, 27-56.
  - 5) 김주희(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친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155-182). 가정복지 세미나 발표논문집.
  - 6) 김태홍(199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11(4), 5-38.
  - 7) 남희용(1990). 도시저소득층과 빈곤문화.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 8) 변화순(1989). 영세지역 아동보육 및 환경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3), 27-38
  - 9) 이미리(1995). 고 3청소년의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89-98.
  - 10)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8a).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특성 조사: 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삼성복지재단 학술연구비 지원 과제 결과 보고서.
  - 11)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8b).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제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6), 13-26.
  - 12) 정문자, 정현숙(1994).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아동학회지*, 15(2), 3-20.
  - 13) 정서린, 장윤옥(1996). 가정자원정도 지각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353-365.
  - 14) 정현희, 최경순(1996).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 중류층 취업모 아동과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2), 379-390.
  - 15) 조은, 조옥라(1991).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 등 재개발 지역 현장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16)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 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17) 통계청(1997). *한국의 경제 지표*. 서울: 통계청.
  - 18) 한국가족학 연구회(1992).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 19) 허정무(1993). 부모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 모형 분석: 맞벌이 부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32, 389-428.
  - 20) Aldwin, C. M. & Revenson, T. A.(1987). Does coping hel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37-348.
  - 21) Antonucci, T. C. (1993). A life-span view of women's social relations. In B. F. Turner & L.E. Troll (Eds.), *Growing old female: Theoretical perspectives in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Sage.
  - 22) Billings, A. G. & Moos, R. H.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impact of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157.
  - 23) Billings, A. 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24)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25)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26)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27) Feiring, C. & Lewis, M. (1991).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he social network and perceived in the social network and perceived self-competence. *Sex Roles*, 24, 489-509.
- 28) Folkman, S., Lazarus, R.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29) Frydenberg, E. & Lewis, R. (1991). Adolescent coping: The different ways in which boys and girls cope. *Journal of Adolescence*, 14, 119-133.
- 30)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31) Lee, M. (1991). Effectiveness of coping in adolescence: The case of Korean Examination Stres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SA.
- 32) McCubbin, H., Olson, D., & Larson, A. (1982).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 F-COPE. In D. Olson (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33) Reischl, T. M. & Hirsch, B. J.(1989). Identity commitments and coping with a difficult developmental transi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5-69.
- 34) Seiffge-Krenke, I. & Shulman, S. (1990). Coping style in adolescence: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351-377.
- 35) Thoits, P. A. (1987).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16-423.